

배운 것도 즐긴 것도 많았던 도시체험캠프

작년이 지나고 11월만을 기다렸다. 수협에서 간 어촌 어린이 도시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즐겁고 기억에 남아서 또 신청했다. 당첨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서 어찌나 기쁘던지.. 즐겁고, 인상이 깊은 수협 어촌 어린이 도시 체험 프로그램의 후기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1일차엔 서울에서 집합 후, 발대식까지 마치고 수협중앙회 건물을 견학했다. 수협중앙회 방송국을 견학해보며 친구들이 FBS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나도 해볼까?' 생각은 들었지만 참여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다. 결국 앵커 체험은 포기하고 편집실로 갔다.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득 '영상제작부에서 조장으로 활동중인 나도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협중앙회 견학 후, 한강으로 갔다. 애슐리 뷔페에서 저녁도 든든히 먹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밤하늘 밑을 걸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친구와 대화도 하며 한강공원에서는 차분한 마음을 만끽했다.



다음 날인 2일차, 가장 먼저 경복궁으로 갔다. 추억의 거리를 거닐며 옛날 길거리의 모습도 알아보았다. 직접 들어가보진 못해 아쉬웠지만, 길거리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습지도 풀었다.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학습지를 풀 뿐만 아니라 유물과 문화를 감상하며 과거에 대해 배울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 관람이 모두 끝나고, 서울퓨처랩에 방문하여 드론과 미래기술에 대해 수업했다. 드론을 직접 조종하기도 하고, 드론 시뮬레이터로 미션도 수행하며 미래기술에 대해 한 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퓨처랩 수업 후, 저녁을 먹고 메가박스에 영화를 보러 갔다. "나우유씨미"를 관람하며 휴식도 취하고 팝콘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2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후 숙소로 도착하여 친구들과 조금 대화도 하고, 씻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3일차 활동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다.



3일차 아침, 조식을 먹고 서울대학교에 방문했다. 서울대 견학이 내가 가장 기대한 활동이기도 하고, 요즘 불타던 학업열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명사 특강과 견학이 3일동안 엄청 기다려졌다. 명사 특강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아이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많은 것을 들었다. 재밌는 질문을 하는 형도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기 30초 전에 꿈을 꾸다고 하는데, 그럼 꿈이 알람소리를 예측하는 건가요?" 맞는말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웃겼다. 명사님도 웃으시며 그런 우연의

일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명사님 특강 후 서울대학교를 둘러보고, 정문에서도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서울대학교 방문 후 롯데타워 견학을 했다. 오랜만에 간 롯데타워라 조금 들뜨기도 했지만 무서운 기분도 들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투명유리에 올라가보니 아찔하고 무서웠다. 강화유리라지만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해보고 올라가서 최대한 오래 있으려 해보기도 하며 롯데타워의 경치를 만끽했다.

롯데타워 견학 후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놀았다. 난 무서운 놀이기구는 정말 못타서 D조로 갔다. D조는 나밖에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D조로 오는 학생이 늘어났다. 학생들 3명과 놀이기구를 타고, 사진도 찍으며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돌아다녔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마지막으로 3일차 활동도 끝이났다.

마지막 날인 4일차, 조식을 먹고 독도체험관에 방문했다. 독도체험관에선 독도에 대한 유물과 자료 등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타임스퀘어에서 기념품도 사고, 썬벡버거에서 점심도 먹고 서울역으로 가 KTX를 탔다. 부산역에 도착해 엄마께 연락을 드렸는데, 집 안의 일로 엄마가 부산역에 데리러 오시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촌이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삼촌이 부산역에 오기까지 좀 걸리는 것이다. 20분동안 기다리는 동안, 강용욱 선생님께서는 열차 출발시간 직전까지 우리 옆에서 계속 기다려 주셨다. 삼촌이 오셔서 짐을 차에 넣는 것 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 3박 4일 서울 도시체험은 배운 것도, 즐긴 것도 많은 좋은 경험이 가득했다. 가능하면 6학년 때도 참여하고 싶다. 선생님들, 41명의 학생들을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지도해 주세요!